

# 도-국민의당 예산 정책협의회 개최

### 19개 쟁점사업 선제적 대응·지역현안 해결 논리개발 등 토론

전북도는 4일 국민의당 예산결산 위원회와 예산 정책협의회를 갖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 및 장병완 의원, 김성식 의원, 김광수 의원, 김종희 의원, 이용주 의원 등 예결위원과 정동영 의원,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이용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17년 국가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달성을 위해 주요 쟁점사

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점 확보 대상사업과 예타가 진행중인 사업,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 등 19개 쟁점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논리개발 등을 토론했다.

전북도는 2017년 국가예산 중점확보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등 4

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등 3개 국가계획에 대한 국가 중장기 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8월 개최자가 결정되는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전라북도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에 따라 중앙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홍보 지원과 중앙정부 및 기업 등이 잼버리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이다. 도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예결위원들은 "국민의당과 전북도가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민의당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와 예산 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이어 전북교육청과도 예산정책 협의회를 진행했다. /신광영 기자

## 해외여행객 지카바이러스 예방 당부

### 밝은 색 의류로 노출 최소화·모기피피제 준비 등

전북도 보건당국은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개최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당부했다.

먼저,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방문할 때는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야 한다.

또 입산부의 경우는 출산 이후에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게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시 모기피피제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지역 여행 후 2주 이내 발진과 함께 근육통, 결막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해외유입으로 인한 발생이 9명이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발생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없기 때문에 모기물림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도 종합병원 의료진 결핵 '감염'

최근 국내 유명대학병원과 대형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도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전북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명이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해당 의료진들은 상반기 병원 자체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은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감염된 의료진은 약물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뒤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전쟁은 잠시 잊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구성된 난민팀(Refugee Olympic Team·ROT)이 대회 개막을 앞두고 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에서 열린 국기개양식에 참석해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 "사드, 성주내 다른 부지 검토"

국방부는 4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와 관련,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해당 지자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존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홍보단 공연

### 도내·무주군 인근 충청지역 축제현장 찾아 총 15회 태권도 시범공연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인지도 확산과 저변확대를 위해 세계태권도 홍보단이 출격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세계 태권도 대회 홍보단은 도내 및 무주군 인근 충청지역 축제현장을 찾아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격파, 품새, 단체군무 등 수준 높은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세계 태권도 홍보단은 도내 3개 대학교(전주대, 비전대, 우석대)와 전북 태권도협회 어린이시범단 각 30명씩 총 120명으로 구성됐다.

각 시범단은 4회씩(단, 어린이시범단 3회) 총 15회를 공연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전북도, 조직위원회, 시군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했고 2016년 11회, 2017년 4회에 걸쳐 시범을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타 지역으로는 오는 8월 25일 충북영동 포도축제를 시작으로 충남 금산 인삼축제(9월24일) 등 2개 지역에서 공연한다.

도내에서는 장수 한우랑사과광축제(9월2일), 원주 와이드 푸드축제(9월 23일), 전주 세계소리축제(9월29일),

김제 지평선축제(9월29일), 군산 시간여행축제(9월30일), 고창 모양성제(10월5일), 임실 N치즈축제(10월6일), 진안 홍삼축제(10월12일), 순창 장류축제(10월13일), 정읍 예술제(2017년 4월중), 남원 춘향제(2017년 5월중), 부안 마실축제(2017년 5월중), 익산 서동축제(2017년 5월중) 등 13개 지역이 대상이다.

한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오는 2017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신광영 기자

## '김영란법',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오늘 개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법제처는 4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황성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5일 오후 2시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는다. 주로 법리적 이견에 대해 논의하고, 부처 간 정책적 이견은 국무조정실이 조정하게 된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일 쟁점 정리 및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적 단계인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은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관 업계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뉴시스

## 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올해 30억 투입

### 어린이 보호구역내 100대 CCTV 설치·5개소 시설정비 완료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24개소 100대 CCTV 설치와 5개소에 대한 시설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30억원 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판 등 3개소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82개소 188대를 설치 완료했다.

이번 3분기에 CCTV 설치와 시설정비를 마치면 모두 106개소 288대 CCTV와 8개소에 대한 시설 정비가 완료된다.

도가 CCTV와 교통안전시설 점검에 나서 이유는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내놓은 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어린이 사고 발생이 617건에 달했지만 2015년은 514건으로 103건이 감소돼 등하교시 어린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 요인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도진 도 물류과장은 "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689억원을 들여 어린이 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이번 시설 정비를 조기 완료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상속한정승인공고

전주지방법원

△심판  
사건 2016년570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1. 유공인(530902-\*\*\*\*\*)  
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89(인후동 2가)  
2. 유선미(80022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05, 524동 1002호  
3. 유선희(811028-\*\*\*\*\*)  
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89(인후동 2가)  
4. 유인숙(830706-\*\*\*\*\*)  
주소: 경기 파주시 한빛로 67 209동 1004호(야당동, 한빛마을2단지 유민빌레이크팰리스)  
5. 유지혜(850101-\*\*\*\*\*)  
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89(인후동 2가)  
6. 유광열(891202-\*\*\*\*\*)  
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89(인후동 2가)  
피상속인 상속대리인 변호사 서성숙  
망 입혜숙(551017-\*\*\*\*\*)  
2014. 8. 6.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89(인후동 2가)

주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입혜숙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6. 6. 29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  
가. 예금채권: 1,142,633원  
나. 보험 해지환급금: 1,719,090원

2. 소극재산  
가. 채권자 조정숙  
채무액: 차용금 100,000,000원

2016. 8. 1. 판사 허윤범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